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전 주 연 이 은 경 유 나 현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개인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 총 20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동조성,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덕성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이 밝혀졌고 생활스트레스 중 학습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이를 통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자아감은 관련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동조성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개입이 자아감이 아닌 스트레스와 도덕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동조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도덕성

유나현, 이은경, 전주연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있고, 이기학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135-79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확대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신과 주변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래 관계는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게 해주고 학업, 가족 등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험은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동일시 대상으로서 또래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인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심을 키워나가기도 한다. 즉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Parker & Asher, 1987). 그렇지만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로움, 심리사회적 문제, 소외감 등이 유발된다. 특히 또래집단의 거부와 괴롭힘으로 인한 적개심은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사회기술을 익히는데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Zakalata, 1998).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집단따돌림은 대표적인 부정적 또래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집단따돌림은 왕따, 이지메, 괴롭힘(bullying 또는 harassment),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박경숙 등(1998)은 집단따돌림을 왕따라고 부르는데, 왕따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사람을 대상으로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구분용(1997)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

루어 특정인 혹은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집단따돌림이란 다수로 구성된 집단이 소수의 집단원이나 소속된 개인을 소외시키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원인을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해학생들의 인성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따돌림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동조란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한 개인이 소속집단의 압력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또래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외모, 가치관, 취향,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양식 등을 공유하고 집단의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Asch(1956, 최윤희, 2001, 재인용)는 피험자들의 집단의 규범에 대한 동조는 자신의 관찰에 대한 확신의 결여보다 오히려 집단과 피험자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자신이 현상에 대해 명백히 관찰하고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의 규범이나 행동에 동조해 버린다. 이런 점에서 동조는 일반적으로 집단의 가치나 행동 등이 개인의 신념과 일치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집단의 규범이나 의사가 개인적인 태도나 신념과 다를 때에도 집단원으로 하여금 집단의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경향이다. Brown, Clasen과 Eicher(1986)에 의하면 또래집단의 규칙이나 행동에 따

르려고 하는 또래에 대한 동조성은 종종 청소년 행동을 이해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김용태, 박한샘, 조은경(1997)에 의하면 친구를 따돌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덩달아서 따돌리게 됨'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집단따돌림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그에 참여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죄책감과 열등감을 조장하여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혜영, 김영철, 1999). 이렇게 동조는 집단따돌림의 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시키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집단따돌림의 일차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이지만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철저히 외롭게 만드는 것은 방관하고 동조하는 또래들이다(서영창, 1999).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동조하는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최윤희(2001)는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해 알아보았고, 김현주(2003)는 동조집단을 세부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성을 알아본 연구들이 있었다(배진향, 2004; Epley & Gilovich, 1999). 그리고 박정은(2002)에 의하면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경향이 높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이 기존에 중요시되지 않았던 동조집단을 고려하였으나 동조 집단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대상은 여전히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 또는 가해-피해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만으로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

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조하는 학생들의 경향 및 특성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집단따돌림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집단따돌림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집단따돌림의 특성과 양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집단따돌림은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강박관념, 외모,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꾸중 등 자신을 압박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 어떠한 것도 해소할만한 수단이나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이은애, 1999). Lazarus와 Folkman(1984)은 지각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두 가지 대처 기능을 구분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박성규 .등, 1999).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가해학생 및 동조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 중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부적합한 반응 양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집단따돌림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아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자아감이란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의식 또는 관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 우선 자기효능감이란 무엇을 생산해내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Bandura, 1997).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다양

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의 가해 집단, 피해 집단, 가해-피해 집단, 일반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각 집단의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병두, 2000). 한편, Bandura(1997)는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강한 자기효능감이 더 나은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을 주도할 가능성이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반응패턴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공격적이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이 괴롭히는(bullying) 행동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Natvig, Albrektsen, & Qvarnstrom, 2001). 자아감과 관련된 또 다른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다. 이것은 긍정적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심리학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송지원, 1997).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 수준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동형태는 달라지며 여러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연구가 많다(최윤희, 2001).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일탈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그 결과들이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회에 대한 복수로, 필요한 자아존중감을 느끼기 위하여 일탈행동에 개입한다(Rigby & Cox, 1996). 이와 유사하게 아일랜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Moore와 Hillery(1989)의 연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Duncan

(1999), Rigby와 Slee(1991), Tritt와 Duncan(1997)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해자의 자아존중감은 피해자의 것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최윤희(2001)의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집단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 집단의 전체 자아존중감이 피해 집단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따돌림은 개인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과 도덕성의 혼미가 집단따돌림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가치관과 도덕성의 혼미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윤리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올바른 윤리 의식의 확립을 어렵게 한다. 보편적 윤리의식을 내면화시키지 못한 청소년들은 왜곡된 사회 인식을 발달하게 되므로,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는 또래를 따돌리는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박성규 외, 1999). Kohlberg(1981)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은 대체로 같은 집단 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도덕발달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래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도 없어서 그들에 대한 조롱과 놀림을 단지 장난으로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심리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집단따돌림 현상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조는 집단따돌림의 발생 및 지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더불어 동조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집단따돌림의 해소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조하는 학생들과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의 정도나 영역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개입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조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단따돌림의 양상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을 바탕으로 동조가능성을 예측하고 동조하는 학생의 특성과 경향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집단따돌림에 동조하는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학교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집단따돌림의 주요 원인인 개인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변인이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 즉 동조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를 돕지 않는 방관적 태도를 가진 사람과 가해자에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따돌림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를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자 한다. 또래의 개입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집단따돌림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따돌림을 지속시키는 두드러진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Atlas & Pepler, 1998). 이와 같은 동조성향에 대한 개념을 통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해봄으로써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높은 동조성향을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로 간주하고, 기존 연구에서 살펴 본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중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

감, 도덕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설 1. 생활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아감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자기효능감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자아존중감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도덕성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 소재의 4개 중학교 재학생 252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48명을 제외한 204명(남 116명, 여 79명, 무응답 9명)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1학년은 10명, 2학년은 40명, 3학년은 127명 그리고 무응답이 27명 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4.12세(표준편차.49)이고 범위는 12세~16세였다.

측정도구

또래 동조성향 수준 측정도구

오경희(1990)의 또래 동조성 척도를 유귀순(2001)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따돌림에서의 가해 행동에 대한 동조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당신의 친한 친구들이 한 아이에게 나쁜 언어

즉, 욕을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듣기엔 귀에 거슬리고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당신도 욕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나쁜 언어(욕)을 하겠습니까?’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그렇게 할 것이다.’, ‘자주 그렇게 할 것이다.’, ‘매우 자주 그렇게 할 것이다.’의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이 척도를 ‘예’, ‘아니오’의 강제선택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를 통해 산출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는 .68이었다. 총점의 범위는 0에서 1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동조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적극적 동조와 수동적 동조의 두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동조와 수동적 동조 모두가 집단따돌림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므로 동조성향수준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김교현과 전경구(1993)가 개발한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가족관계(9문항), 동성친구 관계(9문항), 이성친구 관계(10문항), 교사와의 관계(10문항), 학업문제(10문항), 오락 및 여가생활 문제(9문항),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8문항), 일상생활문제(9문항)의 8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의 총 7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에서 37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 는 .94이었으며, 하위 척도별 α 는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79), 친구관계(.76), 이성친구

관계(.75), 교사와의 관계(.92), 학업문제(.71), 오락 및 여가활동 문제(.76),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65) 일상생활 문제(.64).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효능감과 지각된 통제력을 개인, 대인관계, 사회정치적인 범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Paulhus(1983)의 척도(Spheres-of-Control Battery Items)를 송원영(1999)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개의 문항 중 집단따돌림과 관련되는 개인적 자기효능감(9문항)과 대인관계 자기효능감(10문항)으로 구성된 19문항을 이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에서 95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 는 .75, 개인적 효능감의 Cronbach α 는 .51, 대인관계에서의 효능감은 .70으로 양호하게 검증되었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1965, 최정아, 1996, 재인용)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최정아(199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0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는 .87이었다.

도덕성 측정도구

조학래(1996)가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도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하위척도는 이타성(11문항)과 사회적 책임성(9문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도덕성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에서 10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Cronbach α 는 .77이었다.

도덕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 for WINDOW) 프로그램(Ver. 10.0)을 이용하였다.

결 과

연구절차

연구자는 동조성,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도덕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2004년 5월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분석방법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목적은 가해자, 피해자 중심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도덕성을 바탕으로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동조성향과 생활스트레스 총점수의 상관은 유의미하였고 동조성향과 생활스트레스의 각 하위 척도들 간 상관은 동성친구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하였다. 동조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동조성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동조성향과 도덕성은 유의미한 부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동조성향	-				
2. 생활스트레스	.263**	-			
3. 자기효능감	-.114*	-.301**	-		
4. 자아존중감	-.147	-.322**	.694**	-	
5. 도덕성	-.312**	-.160*	.225**	.262**	-
M	9.96	192.01	60.82	32.57	65.18
SD	1.62	36.28	8.3	6.51	8.16

* $p < .05$. ** $p < .01$.

표 2.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자아감, 도덕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R	R ²	ΔR ²	β	t	F
도덕성	.312	.097	.097	-.277	-4.191	21.777***
생활스트레스	.379	.144	.046	.218	3.303	10.911**

p<.01. *p<.001.

적상관을 보였다(표 1).

다음으로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도덕성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덕성과 생활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예측하였다, $R^2 = .144$, $F(2, 201) = 16.878$, $p < .001$. 이 모델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변량의 14.4%를 설명하였다(표 2). 집단따돌림의 동조성향에 대한 도덕성의 Beta 값은 -.277로 이는 단순 상관에서의 결과($r = -.312$, $p < .01$)와 일관된 것으로 도덕성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의 동조성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동조성향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의 Beta 값은 .218로 이는 단순 상관에서의 결과($r = .263$, $p < .01$)와 일관된 것으로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의 동조성향이 증가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도덕성과 생활스트레스가 집단따돌림의 동조성향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생활스트레스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예측함에 따라 생활스트레스를 구성하는 8개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도덕성과 생활스트레스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덕성과 학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예측하였다, $R^2 = .168$, $F(2, 201) = 20.247$, $p < .001$. 이 모델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 변량의 16.8%를 설명하였다(표 3).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도덕성과 학업스트레스가 집단따돌림의 동조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도덕성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생활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

표 3.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하위척도, 도덕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R	R ²	ΔR ²	β	t	F
도덕성	.312	.097	.097	-.297	-4.607	21.777***
학업스트레스	.409	.168	.070	.266	4.122	16.992***

***p<.001.

성향을 예측한다. 높은 수준의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 유형별 스트레스의 평균값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문제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 하위요인 보다 더 유의미하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동성친구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예상과 달리,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업문제와 교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의 63%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다른 영역보다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로의 진학이라는 당면 과제가 생활에서 더 큰 압력을 주어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김교헌, 전경구, 1993). 또한,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 못지않게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은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나친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와 같은 부정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금주(2000)에 의하면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 개념이 있는 경우 또래의 압력에 덜 동조적이라고 했다. 또한 동조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조행

동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윤희, 2001).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감, 즉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관련이 적음을 나타낸다. 이는 가해자, 피해자와는 달리 동조하는 학생들의 자아감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이 동조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때, 동조자들의 자아감은 일반학생들의 자아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성규 등(1999)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현상은 또래관계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자아감에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소속감과 또래와의 동질감을 느끼고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적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도덕성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Kohlberg(1981)가 언급한 도덕성 발달단계의 특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집단따돌림에 동조하는 성향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덕적으로 발달된 사람은 개인적 욕구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Krebs & van Hesteren, 1994).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왜곡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으며 도덕성에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Crick & Dodge, 1994; Pepler, Craig & Roberts, 1998). 도덕성이 낮은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에 보다 쉽게 동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현상의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가장 영향력 있게 예측하는 변

인은 도덕성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가장 잘 예측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생활스트레스 요인들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은경 등(2004)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생활스트레스는 제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자료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동조성향 수준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하위척도 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가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박성규 등(1999)에 따르면 동조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 이를 고려할 때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갈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가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집단따돌림에 동조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아감의 문제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소속집단의 역동에 의한 것으로 소속감과 동질감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 대상자의 56%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상황적 특성이 지각된 생활스트레스 정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질적인 집단의 특성을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알아본 동조성향 수

준은 실제로 집단따돌림에 동조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동조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척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소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은 집단따돌림의 구성원을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해자 그리고 그 외의 일반학생으로 구분해왔다. 더 나아가 집단따돌림에 동조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동조하는 아이들을 일반학생으로 보거나 동조자, 방관자 등으로 나누어 보았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따돌림 동조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동조성 척도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동조성향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추후에는 피해자, 가해자와 함께 동조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도구 제작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대하는 교사 및 상담자들은 집단따돌림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개입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따돌림 현상의 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따돌림의 유발과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조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곽금주 (2000). 또래간 사회적 관계: 부정적 측면에 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77-89.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교현, 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김용태, 박한샘, 조은경 (1997) 청소년 친구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김현주 (2003). 집단 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경숙 외 (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성규, 이은애, 한창근, 김진태 외 (1999). 왕따 리포트. 서울: 우리교육.

박정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진향 (2004). 집단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이 집단 따돌림의 동조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영창 (1999). 왕따극복하기. 서울: 산성미디어.

송원영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지원 (1997).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경희 (1990).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귀순 (2001). 공격성과 동조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병두 (2000). 학교폭력 왕따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 성격과 정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경, 유나현, 전주연, 이기학 (2004). 개인심리적 특성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5-266.

이혜영, 김영철 (1999). 학생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9-118.

조학래 (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윤희 (2001).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집단의 동조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tlas R. S., & Pepler D. J. (1998). Observations of bullying in the classroom.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2(2), 86-99.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New York.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lea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uncan, R. (1999). Maltreatment by parents and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Maltreatment*, 19, 45-56.
- Epley N., & Gilovich T. (1999). Just Going Along: Nonconscious Priming and Conformity to Social Press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578-589.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 Krebs, D. L., & van Hesteren, F. (1994). The development of altruism: Toward and integrative model. *Developmental Review*, 14, 103-158.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ew York.
-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61-575.
- O' Moore, A. M., & Hillery, B. (1989). Bullying in Dublin schools.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0, 429-441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ulhus, D. L. (1983).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53-1265.
- Pepler, D. J., Craig, W. M., & Roberts, W. L. (1998). Observations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children on the school playground. *Merrill-Palmer Quarterly*, 47, 55-76.
- Rigby, K., & Cox, I. (1996). The contribution of bullying at school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4), 609-612.
- Rigby, K., & Slee, P. T.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5), 615-627.
- Tritt, C., & Duncan, R. D.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and young adult self-esteem and loneliness.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67, 35-44.
- Zakalata (1998). Peer rejection: A follow-forward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peer status and school-relates variables.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
- 원고접수일 : 2004. 9.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1. 19.
게재결정일 : 2004. 11. 25.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nformity in Group Bully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Joo-Yeon Chon Eun-Kyoung Lee Na-Hyun Yoo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tress, self-efficacy, self-esteem, and mor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show a high level of conformity. A survey containing questions about conformity, stress, self-efficacy, self-esteem, and morality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204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morality and academic stress were strong predictors of conformity in group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contrar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on self-efficacy and self-esteem. Based on the results, a further study should be investigated with a focus on stress and morality of the students who are more likely to conform with bullies since little relationship was found on self-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onformity in group bullying, the needs for a future study are suggested.

Keywords : *Conformity in Group Bullying, Stress, Self-Efficacy, Self-Esteem, Morality*